

세균에 의한 질환...물 많이 마시고 통풍 잘 되는 옷 입어야



건강 바로 알기 방광염

한 양 희

동신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급성 방광염은 방광 및 요로계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 없이 세균의 침입으로 발생한다. 방광염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흔하다. 이는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요도가 짧고, 장내세균이 회음부에서 쉽게 증식,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상행성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증상=급성 방광염은 하루에 8번 이상으로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소변을 참기 어려운 급박한 요의를 느끼거나, 소변을 볼 때 하복부나 요도의 통증을 느끼는 등 방광 자극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

재발 많아...꾸준한 치료 중요

스트레스 피해 면역력 높여야

충분한 수면·휴식 예방에 도움

난다. 또 소변에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소변이 맑지 않고 뿌옇거나 붉은색의 혈뇨가 보이기도 한다. 허리의 통증이나 아랫배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만성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증상 방광염처럼 감염이 발생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만성적인 방광염 증 질환에는 간질성 방광염처럼 급성 방광염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박테리아 감염 등 특징적인 병리학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광염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요배양 검사에서도 뚜렷한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는 여성 요도 증후군도 있다. 여성 요도 증후군은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정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곤 한다. 이 증후군은 특정한 원인이 아닌 급·만성 요도염 등 요로계의 질환의 과거력, 호르몬 분비 상태, 정신·심리적 자극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 및 검사=방광염의 진단은 임상 증상과 소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변검사서서 염증 소견, 혈뇨, 세균뇨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균 감염의 확인 및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위해 소변 배양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치료=감염된 세균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도 필요하지만, 스트레스, 피로 등의 원인으로 면역

방광염 자가 점검표

- | | |
|--|--|
| ☒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참기가 힘들다 | ☐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깬다 |
| ☒ 소변의 색이 뿌옇고 악취가 난다 | ☒ 배뇨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다 |
| ☒ 배뇨 시 통증이 있으며 하복부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 | ☒ 소변에서 붉은색이 보인다 |

(위 중 세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방광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력이 떨어지면 방광 자체의 방어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몸의 면역기능을 높이는 치료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요로 감염질환을 임병(淋病·성병인 임질과는 전혀 다름)이라 하여 치료해왔다.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환자마다 다양한 신체 상태를 고려해 각각 다른 원인으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진찰 후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한약치료,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좌훈요법 등을 이용해 치료한다.

방광염은 쉽게 재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면 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의 호전뿐만 아니라 치료 후 소변검사를 통해 염증이 해결되었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방광염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지 않아 소변 양이 줄어드는 경우 방광, 요로에서 세균이 씻겨나가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하루에 체중 1kg당 50cc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활동량 및 운동량에 따라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변을 오래 참지 말아야 한다. 소변이나 대변을 본 후 뒤를 때에는 몸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 요도가 세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은 저하된 신체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딱 끼는 하의는 회음부를 습하게 만들어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성관계 전·후 생식기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잦은 질 세척은 회음부의 적절한 산성도를 무너뜨려 세균 방어 기능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임상 참여

신생아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18개국 시행...국내선 5곳 승인

김윤하 교수 임상시험 주도



해 RSV라는 위험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다가오게 됐다"면서 "임신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SV' 세계적으로 생후 27일 미만 신생아의 사망 원인 중 2.3%를 차지하며, 1세 미만 영아의 사망원인 6.7%에 달한다.

일년 중 늦가을에서 봄까지 발생률이 높고, 가벼운 감기와 같은 상기도감염에서부터 중증 하기도 감염까지 증상 발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감염으로 기도의 상피세포를 손상시켜 여러 염증성 전구물질을 방출시키고, 이로 인해 전식·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염증성 사이토카인 등) 분비가 촉진 돼 만성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RSV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는 단클론항체 제제로 고위험 영아에서 유행 시기에 접종해야 보합이 적용되는 등 사용 제한이 많고, 출생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임상시험으로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분만 전 임신부에게 백신을 투여하여, 태중에서 임신부로부터 항체를 전달받는 모체 면역성 접종의 개념으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면역력이 향상되어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아동양육시설에 생필품 지원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광주지역 한 아동양육시설에 생필품을 긴급 지원했다. <사진>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과 전남대어린이병원 운영지원팀 공동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지원은 최근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해 후원이 줄어든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건강과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급히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박창환 진료처장·윤경철 기획조정실장과 이번 물품을 전달하게 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의 박상준 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선정

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

2개 분야 18억원씩 지원 받아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2개 분야에서 잇따라 선정됐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서비스를 신속하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국가 주요사업이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주완 교수는 '정신건강 진단 및 예측을 위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데이터'라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에 선정됐으며,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는 '순음청력

검사 데이터'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 총책임자인 김주완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 전민 교수와 함께 (주)메가웍스·(주)대신정보통신·특허법인 지원·(주)라라랩스·(주)이코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올해 12월까지 정부지원금 18억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는 이성수·김홍찬 교수와 함께 순음청력검사 데이터 사업에 나무인텔리전스 주관으로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경북대병원·충남대병원·나주시기술·인피노브·조인트라이루온 아이엔에스와 같이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선정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정부의 주요 연구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냄으로써 국가 의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연구중심병원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체외검사실

대한핵의학회 우수검사실 인증

전남대병원 핵의학과체외검사실(책임자 한유미 임상병리사)이 최근 대한핵의학회의 핵의학 검체 검사 인증평가에서 우수검사실로 인증받았다.

대한핵의학회는 전국 핵의학과 체외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평가에서 전남대병원 체외검사실이 평가 전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수검사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체외검사실은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다음 연도의 인증평가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핵의학 체외검사란 방사면역측정법을 이용하여 환자 혈액 내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 암 표지자, 호르몬,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체외검사실은 104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식 인정까지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